

연중 제14주일 복음 나누기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마르 6,6)

1. 성호경
 2. 시작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
 3. 자기소개와 한 달의 삶 돌아보기(각자 어떻게 지냈는지 발표합니다)
 4. 준비기도<각자 자유롭게>
 5. 독서 (성경읽기 I) - 마르 6,1-6
-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 1 (그때에)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 2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 3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 4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 5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 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 6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세밀한 독서 나눔

- 한 사람이 성경을 큰 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다 같이 큰소리로 읽어도 좋습니다)
- 모두 들은 후, 각자가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세밀히 읽습니다.
- 처음부터 단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읽습니다. 의미 있는 단어, 반복되는 어휘나 문장을 주의 깊게 읽으며, 성경의 다른 곳에 그 말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지 기억하도록 합니다.(약 5분 정도)
- 한 사람씩 특별히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아주 천천히 세 번씩 반복하여 외칩니다.
- 단어나 구절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돌아가며 발표합니다.
- 세밀한 독서가 끝나면 성경 해설 부분을 서로 돌아가면서 천천히 읽습니다.

< 성경해설 >

우리는 때때로 사회적으로는 존경을 받으면서도 가까이 있는 이들, 곁에 있는 이들, 곧 내 남편, 내 아내, 혹은 내 친구들로부터는 존경받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는 그 반대편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왜 내 곁에 있는 이들, 곧 내 부모 형제들, 내 동료들을 존경하지 못할까? 너무도 잘 알아서 그럴까요? 그런데, 나는 그를 진정 잘 아는 걸까요? 혹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서는 아닐까요?

복음에서는 그 이유가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고향 사람들에게 있음이 드러납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내 동료, 내 형제자매를 존경하지 못한 이유를 내 형제자매에게서 찾기에 앞서, 먼저 나 자신에게서 찾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지혜와 기적을 보고 ‘놀라워하였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놀라워하였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보고 알았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곧 그들은 그분의 신적 권위와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놀라워하였지만 또 다른 사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분이 목수이기에, 마리아의 아들이기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기에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에서 ‘안다.’는 것이 오히려 믿음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마르 6,3). 왜일까요? 왜 우리는 가까운 이나 함께 살고 있는 이를 존경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못마땅하게 여기기까지 할까요?

그것은 내가 ‘그를 안다.’는 자기 생각에 빠진 결과가 아닐까요? 곧 ‘있는 그대로의 그’가 아니라 ‘내가 아는 그’라는 선입감을 믿어버린 것이 아닐까요? 사실, 그것은 그에 대한 하나의 편견이요, 고정관념이요, 고착일 뿐일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자신이 아는 것 그것을 섬기고 따르고 마는 하나의 우상숭배일 뿐일 것입니다. 진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안다.’는 생각에 가려 진면목을 알아보지 못한 무지요, 곡해와 왜곡과 몰이해일 것입니다. 거기에는 질투와 시기, 비교와 경쟁, 이해타산의 이해관계가 있고, 신뢰가 아닌 의혹이 있고 따짐이 있고 계산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안다.’는 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일입니다. 오히려 나는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일입니다.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지를 우리는 흔히 ‘무지의 지’라고 일컫습니다. 이른바 ‘현명한 무지’입니다.

사실, 자신이 ‘안다.’는 생각, 그 생각은 곧 우상에 지나지 않을 뿐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우상을 벗어나야, 진정한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자신의 앞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앞으로부터 해방시켜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자신 안에서 하느님을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우상의 하느님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신 하느님, 주님이신 주님, 비록 자신이 아는 그러한 주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타인에게 자신을 개방하는 일, 개방을 넘어서 타인을 수용하는 일, 수용을 넘어서 타인으로 하여 자신의 변형을 이루는 일,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앞을 비워내고 자신의 앞을 넘어서는 그분을 믿고 받아들임에 달려 있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습니다.”(마르 6,6) 당혹스럽고 안타까움으로 놀라워하셨습니다. 마치, 수술을 받아야 살 수 있는데도 의사를 믿지 않고 수술을 거부하는 환자 앞에 선 것처럼, 당혹해하시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의사는 치유의 능력이 있건만 환자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야말로, 진정 하느님을 끌어당기는 자석입니다. 우리의 불신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혹해하시지 않으시도록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서야 할 일입니다.

※ 묵상나누기

(말씀 나누기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특별히 체험 발표를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 혹시 내가 주위에 있는 친구에게 무시당한 경험이 있다면 나눠 주십시오.

6. 되새김(성경읽기 II)

☞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며, 기도와 관심 그리고 실천을 위해서는 되새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다른 누군가가 또다시 큰 소리로 읽습니다.

7. 마침기도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8. 안건토의

9. 기타토의(공지사항)

10. 마침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